

제1148호 2013.4.13~4.19

한일부 



주간 북한 동향

Weekly Report on North Korea

개황 | 대남동향 | 내부동향 | 대외동향
주요인물 동정 | 주간보도일지 | 금주의 약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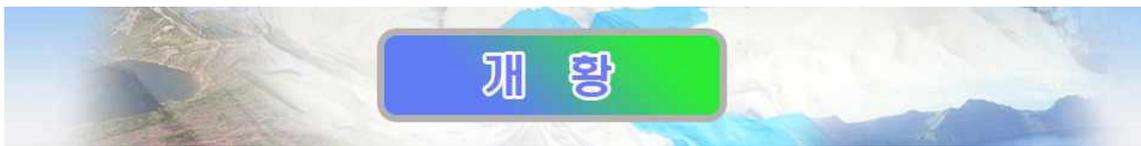
Weekly Report on North Korea



Contents

제1148호 2013.4.13~4.19

I 개황	1
II 대남동향	
우리측 대화제의 비난	2
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 위협	4
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, 비망록 발표	5
III 내부동향	
김일성 생일 101돌 관련 동향	6
IV 대외동향	
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	7
주요인물 동정	8
주간보도일지	18
 금주의 약사	28



개황

대남동향

우리측 대화제의 비난

-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 답변, 국방위 정책국 성명 등을 통해 4.11 우리측 대화제의를 비난하였음. (4.14, 4.18 중통)

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 위협

-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최고존엄을 훼손한 만행에 대해 보복행동을 개시한다고 위협하였음.(4.16 중통)

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, 비망록 발표

-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비망록을 통해 우리측이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하였음. (4.17 중통)

내부동향

김일성 생일 101돌 관련 동향

-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1돌 관련,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였음.(4.14 중통)

대외동향

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

-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와 관련,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음.(4.16 중통)



우리측 대화제의 비난

개요

-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 답변, 국방위 정책국 성명 등을 통해 4.11 우리측 대화제의를 비난하였음. (4.14, 4.18 중통)

주요내용

<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,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 답변(4.14) >

- 우리가 보건대 그것(대화제의)은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적 죄행을 꼬리자르기 하고, 내외 여론을 오도하며,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.
 - 대화제의라는 것을 들여다 보아도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함.
 - 그런 대화는 무의미하며 안하기보다도 못함.
-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의지가 있다면,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, 근본적인 대결 자세부터 버려야 함.

<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(4.18) >

-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할 것임.
 - 첫째로, 지금까지 우리를 반대하여 벌여온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사죄하여야 함. 1차적으로는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들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.
 - 둘째로, 다시는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하여야 함. 대화와 전쟁행위는 절대로 량립할 수 없음.
 - 셋째로, 당면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인 핵전쟁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수하고, 재투입시도를 단념할 결단을 내려야 함.



<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(4.18) >

- 남조선 당국의 대화제의라는 것이 처음부터 전혀 마음에 없는 것이었으며,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들고나온 것임.
 - 정세를 전시상황에 몰아넣은 저들의 죄행을 꼬리자르기 하고, 위기를 모면하며, 여론을 오도하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라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줌.
- 남조선 당국은 개성공업지구 문제만을 떼어놓고 오그랑수를 쓰려고 하지만, 공업지구 사태로 말하면 현 북남관계 정세의 집중적 반영임.
 - 개성공업지구를 위험천만한 전쟁발원지로 만들려 하면서 운영정상화를 위한 대화요 필요 하는 것은 한갓 요설에 지나지 않음.
 -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 연습소동에 계속 매달리며,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도 절대로 있을 수 없음.
-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무력 건설은 북남대화든 조미대화든 협상탁우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님.
 -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든 핵시험을 하든 누구도 시비하고 흥정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, 더욱이 그러한 문제를 론하는 대화는 영원히 없을 것임.



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 위협

개요

-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최고존엄을 훼손한 만행에 대해 보복행동을 개시한다고 위협하였음.(4.16 중통)

주요내용

- 유독 남조선괴뢰들만이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반공강패 무리들을 내몰아 반공화국 집회라는 것을 벌려 놓고, 우리 최고존엄의 상징인 초상화들을 불태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음.
-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남조선 괴뢰들에게 다음과 같은 최후통첩장을 보냄.
 -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천추에 용서 못할 만행이 괴뢰당국의 비호 밑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한 이제부터 우리의 예고 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임.
 - 우리의 천만군민이 최고존엄을 어떻게 받들어 모시고 지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정정당당한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에 개시될 것임.
 - 괴뢰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크고 작은 모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,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겨레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임.



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, 비망록 발표

개요

-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비망록을 통해 우리측이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하였음. (4.17 중통)

주요내용

-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가 건설되게 된 경위와 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장본이 누구인가를 내외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비망록을 발표함.
- 개성공업지구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한 기업가의 통일애국의 뜻을 귀중히 여기시고 숭고한 민족애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대용단을 내리신데 따라 화해와 협력, 통일의 상징으로 건설되게 된 것임.
- 개성공업지구가 파국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리명박과 같은 남조선의 괴뢰보수 패당 때문임.
 - 괴뢰패당은 무턱대고 “진정성이 없다”느니, “통일전선전술”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핵폐기와 천안호 사건, 연평도 문제 등 부당한 조건부를 내세우며, 대화제의를 모조리 차버렸음.
- 개성공업지구사업은 리명박정권의 극악한 대결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 보수정권에 의해 더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.
 - 청와대 안방주인까지 나서서 우리 체제와 경제, 인민생활을 공공연히 시비질하면서 변화를 떠들다 못해 “핵개발과 도발로 얻을 것이 없을 것”이라느니, “핵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”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심히 모독하였음.
- 만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중대조치에 대해 계속 시야비아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 든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.



내부동향

김일성 생일 101돌 관련 동향

개요

-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1돌 관련,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였음.(4.14 중통)

주요내용

□ 중앙보고대회 개최

- 일시 및 장소: '13.4.14(일), 4·25문화회관
- 참석: 김영남·박봉주·최룡해·장성택·현영철·김격식·김기남·최태복·박도춘·김영춘·양형섭·리용무·강석주·오극렬·현철해·김원홍·김양건·김영일·김평해·문경덕·주규창·김창섭·로두철·최부일·리병삼·조연준·김영대·류미영 등
- 보고: 김영남(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)

□ 김정은, '금수산태양궁전' 방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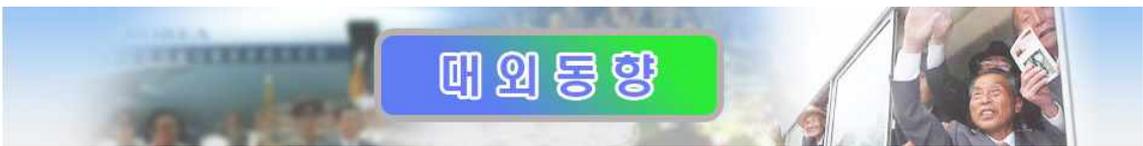
- 일시: '13.4.15(월), 금수산태양궁전
- 참석: 최룡해·장성택·현영철·김격식·박도춘·김영춘·현철해·김원홍·최부일·주규창·김경옥·리영길·김영철·손철주·럼철성·조경철·윤동현·강표영·박정천·리병철·김명식·김락겸·윤정린 등

□ 김정은, '은하수음악회' 관람

- 일시 및 장소: '13.4.15(월), 평양 인민극장
- 참석: 최룡해·장성택·김경희·최태복·양형섭·강석주·곽범기 등

□ 김정은, 군사학교 교직원 체육경기 관람

- 일시 및 장소: '13.4.15(월), 미상
- 참석: 최룡해·장성택·현영철·김격식·김경희·김경옥·황병서 등



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

개요

○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와 관련,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음.(4.16 중통)

주요내용

- 최근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대화를 제의하였음.
 - 이는 미국이 대화를 원하는 듯이 행세하여 긴장격화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계책임.
- 이번 긴장격화의 발단은 미국이 우리의 위성발사권리를 침해한 데 있음.
- 미국은 최첨단 무장장비를 투입하여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따른 군사적 대비를 대폭 강화하는 이득을 보았음.
- 미국이 우리가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의 노선과 법을 무시하는 것임.
 - 우리는 대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에는 마주 앉을 수 없음.
 - 진정한 대화는 우리가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막을 수 있는 핵억제력을 갖춘 단계에 가서야 가능함.
- 미국이 위협하는 이상 우리가 핵무력 강화로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.
 - 이러한 과정에서 훈련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임.
 - 미국이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지 않는 한 군사적 대응을 계속 높여나갈 것임.



주요인물동정

김정은(당 제1비서)

- 미상 양강도 혜산시에 사는 '리을림'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(4.13,중통)
- 미상 「총련」에 1억 9,830만₩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전달(4.13,중통·중방)
- 4.15 '태양절(김일성 생일)'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4.15,중통·중·평방)
- 4.15 평양시민들과 함께 '태양절경축' 은하수음악회 관람(4.16,중통·중방)
- 4.15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(4.16,중통·중방)
- 미상 전국 육아원·애육원·초·중등학교·양로원·양생원의 원아들과 노인들에게 운동복과 학용품·식료품들 전달(4.15,평방)
- 4.16 시리아 독립 67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4.16,중통)
- 미상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한 일꾼(박혜옥, 평양 능리1유치원 교양원) 등에게 '감사' 전달(4.18,중방)

강석주(내각 부총리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- 4.15 김정은, '태양절경축' 은하수음악회 관람시 수행(4.16,중통·중방)

강양모(남포시당 책임비서)

- 4.18 당중앙위·당중앙군사위,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공동명의로 감사전달 모임 참석(4.19,중방)

강준호(창덕학교 교장)

- 4.11 창덕학교 친선대표단으로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(4.13,중통·평방)

강표영(인민부력부 부부장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중통·중·평방)
- 4.18 인민군대표단 단장으로 아프리카 나라들 순방하기 위해 평양 출발(4.18,중통)



강하국(보건상)

- 4.18 駐北 팔레스티나 대사 주최 김일성 생일 즈음 연회 참석(4.18,중통·중방)

고일영(국가과학원 413연구소 부소장)

- 4.17 “경제적 실리가 큰 생물질 압착연료연구 성과 선전(4.17,중통)

곽범기(당 중앙위 비서)

- 4.14 제26차 만경대상마라톤경기대회 개막식 참석(4.14,중통·평방)
- 4.15 김정은, ‘태양절경축’ 은하수음악회 관람시 수행(4.16,중통·중방)

김격식(인민무력부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- 4.15 김정은,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시 수행(4.16,중통·중방)

김경옥(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중통·중·평방)
- 4.15 김정은,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시 수행(4.16,중통·중방)

김경희(당 중앙위 비서)

- 4.15 김정은, ‘태양절경축’ 은하수음악회 관람시 수행(4.16,중통·중방)
- 4.15 김정은,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시 수행(4.16,중통·중방)

김기남(당 중앙위 비서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- 4.14 인민보안부에 김일성父子 동상 건립·제막식 참석(4.14,중방·중통)
- 4.18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당중앙위·당중앙군사위 공동명의로 감사전달 모임 참석(4.19,중방)
- 4.18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식(동평양대극장) 참석(4.18,중통·중·평방)
- 4.19 제15차 김일성화축전 폐막식 참석(4.19,중통·중방)



김락경(전략로케트군 사령관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중통·중·평방)

김명식(인민군 중장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중통·중·평방)

김양건(당 중앙위 비서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
김영남(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)

- 4.13 김정은의 사회정치학 박사 칭호 수여식 참석(4.13,중방·중통)
- 4.13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사회과학자연구소 이사들과 담화(4.13,중통·중방)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- 4.14 인민보안부에 김일성父子 동상 건립·제막식 참석(4.14,중방·중통)
- 4.15 김일성 생일 즈음 만경대 방문(4.15,중통·중방)
- 4.15 김일성 생일 경축 연회(옥류관) 참석(4.15,중통·중방)
- 4.15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(4.16,중통)
- 4.12 짐바브웨 창건 33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4.17,중통·중방)
- 4.13 몬테네그라 대통령(필리프 부야노비치) 再選 축전(4.18,중통·중방)
- 4.19 만수대의사당에서 재일본조선인대표단(단장:리기석)과 담화(4.19,중통·중방)

김영대(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
김영일(당 중앙위 비서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- 4.18 駐北 팔레스티나 대사 주최 김일성 생일 즈음 연회 참석(4.18,중통·중방)



김영철(총참모부 정찰총국장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 중통·중·평방)

김영춘(당 중앙위 군사부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
김용진(내각 부총리)

- 4.17 내각 주최 '2013년 세계 청소년역도선수권대회' 우승자들을 위한 연회 참석(4.17, 중통·중방)

김원홍(국가안전보위부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- 4.14 인민보안부에 김일성父子 동상 건립·제막식 참석(4.14, 중방·중통)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 중통·중·평방)

김진범(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)

- 4.13 김정은의 사회정치학 박사 칭호 수여식 참석(4.13, 중방·중통)

김창섭(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- 4.14 인민보안부에 김일성父子 동상 건립·제막식 참석(4.14, 중방·중통)

김평해(당 중앙위 비서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
김형준(외무성 부상)

- 4.13 외무성 대표단장으로 아프리카 방문 후 귀국(4.13, 중통·평방)



림철성(인민군 중장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중통·중·평방)

로두철(내각 부총리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
류미영(조선전도교정우당 위원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
류영섭(자강도당 책임비서)

- 4.17 희천발전소에 '혁명사적비' 건립 준공식 참가(4.17,중통)

리길성(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)

- 4.14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회 집행위원회 제14차 회의 참가(4.14,중통·평방)
- 4.17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·대표들과 친선연환모임 참가(4.17,중통·중방)

리길준(남포시 인민위원장)

- 4.18 당중앙위·당중앙군사위,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공동명의로 감사전달 모임 참석(4.19,중방)

리병삼(인민보안부 정치국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- 4.14 인민보안부에 김일성父子 동상 건립·제막식 참석(4.14,중방·중통)

리병철(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중통·중·평방)



리영길(총참모부 작전국장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 중통·중·평방)

리영식(당 중앙위 부부장)

- 4.13 김정은의 사회정치학 박사 칭호 수여식 참석(4.13, 중방·중통)

리용무(국방위 부위원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
리용철(당 중앙위 부부장)

- 4.13 김정은의 사회정치학 박사 칭호 수여식 참석(4.13, 중방·중통)

리종무(체육상)

- 4.14 제26차 만경대상마라톤경기대회 개막식 참석(4.14, 중통·평방)

리혜정(사회과학원장)

- 4.13 김정은의 사회정치학 박사 칭호 수여식 참석(4.13, 중방·중통)

문경덕(평양시당 책임비서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- 4.14 인민보안부에 김일성父子 동상 건립·제막식 참석(4.14, 중방·중통)
- 4.17 내각 주최 '2013년 세계 청소년역도선수권대회' 우승자들을 위한 연회 참석(4.17, 중통·중방)

박도준(당 비서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


박봉주(내각 총리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- 4.14 인민보안부에 김일성父子 동상 건립·제막식 참석(4.14, 중방·중통)
- 4.15 김일성 생일 즈음 만경대 방문(4.15, 중통·중방)
- 4.15 김일성 생일 경축 연회(옥류관) 참석(4.15, 중통·중방)
- 4.16 시리아 독립 67돌 즈음 同國 내각 수상에게 축전(4.16, 중통)

박정천(인민군 중장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 중통·중·평방)

배학(원유공업상)

- 4.16 제18차 원유화학국제전시회(이란) 참가차 평양 출발(4.16, 중통)

손철주(인민군 중정치국 부국장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 중통·중·평방)

양형섭(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- 4.15 김정은, '태양절경축' 은하수음악회 관람시 수행(4.16, 중통·중방)
- 4.18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식(동평양대극장) 참석(4.18, 중통·중·평방)
- 4.19 제15차 김일성화축전 폐막식 참석(4.19, 중통·중방)

오극렬(국방위 부위원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
오금철(부총참모장)

- 4.15 김정은,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시 경기준비 보고(4.16, 중통·중방)



윤동현(인민무력부 부부장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중통·중·평방)

윤정린(호위사령관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중통·중·평방)

장성택(국방위 부위원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중통·중·평방)
- 4.15 김정은, '태양절경축' 은하수음악회 관람시 수행(4.16,중통·중방)
- 4.15 김정은,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시 수행(4.16,중통·중방)

전승훈(내각 부총리)

- 4.18 당중앙위·당중앙군사위,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공동명의로 감사전달 모임 참석(4.19,중방)

조경철(인민군 상장)
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중통·중·평방)

조연준(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중방·중통)
- 4.14 인민보안부에 김일성父子 동상 건립·제막식 참석(4.14,중방·중통)
- 4.18 당중앙위·당중앙군사위,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공동명의로 감사전달 모임 참석(4.19,중방)

조일민(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대표)

- 4.17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(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) 일행과 담화(4.17,중통·중방)



주규창(당 중앙위 부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 중통·중·평방)

최룡해(중정지극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 중통·중·평방)
- 4.15 김정은, '태양절경축' 은하수음악회 관람시 수행(4.16, 중통·중방)
- 4.15 김정은,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시 수행(4.16, 중통·중방)
- 4.16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및 인민군열사묘건설정형 현지 요해(4.16, 중통)

최부일(인민보안부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- 4.14 인민보안부에 김일성父子 동상 건립·제막식 참석(4.14, 중방·중통)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 중통·중·평방)

최태복(최고인민회의 의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- 4.15 김정은, '태양절경축' 은하수음악회 관람시 수행(4.16, 중통·중방)

태형철(교육위 고등교육상)

- 4.18 駐北 팔레스티나 대사 주최 김일성 생일 즈음 연회 참석(4.18, 중통·중방)

현영철(인민군 총참모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- 4.15 김정은, 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시 수행(4.15, 중통·중·평방)
- 4.15 김정은,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시 수행(4.16, 중통·중방)

현철해(인민무력부 제1부부장)

- 4.14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가(4.14, 중방·중통)



홍규(駐몽골 대사)

- 4.16 同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(4.18,중방)

황병서(당 조직지도부 부부장)

- 4.15 김정은,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시 수행(4.16,중통·중방)



주간일지

대남동향

■ 4.13(토)

- 개성공업지구 종업원 철수와 사업 잠정중단(48) 관련 ‘공단 존폐 여부는 南 당국에 달려 있으며, 現 집권자는 우리(北) 중대조치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(중통/조선이 취한 중대조치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)
- 우리軍의 대규모합동화력훈련(49~/강원도 동해안 일대) 실시 관련 ‘우리(北)를 건드린다면 강력한 핵공격으로 섬멸적 타격을 가해 모든 것을 잿가루로 날려보낼 것이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/징벌의 불소나기를 청하는 어리석은 망동)

■ 4.14(일)

- 北 「조평통」 대변인,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의 ‘411 對北 대화제의’에 대해 “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”며 “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”고 414 중통기자 대답(중통·중방)
 - 대화제의는 “대결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.”
 -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함.
 - * 대통령(北,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함. 등)과 興黨·언론들의 ‘北, 개성공단 조업 중단’ 지적에 ‘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게 있다’고 왜곡 책임 전가(중통·노동신문/개성공업지구 폐쇄위기는 누가 몰아왔는가)
- 北 「조평통」 대변인 담화(414), ‘괴뢰패당이 어용언론들을 내세워 태양절 경축분위기 비방·최고존엄을 모독·체제결속·대화제의 고민 등’했다며 ‘現정부 역시 역적무리들’이라고 비난 위협(중통·중방)

■ 4.15(월)

- 특이동향 없음.

■ 4.16(화)

- 【北 軍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(416)】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정은사진이 붙은 모형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 관련 ‘예고없는 보복행동 개시,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‘정부당국의 사죄요구(중통·중방·평방) ※ 南 보수단체 회원들, 4.15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퍼포먼스 진행
 -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만행이 괴뢰당국의 비호 밑에 벌어지고 있는 한 우리의 예고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이며 대상에는 직·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과 부추기고 묵인한 놈들 및 해당 당국 기관, 부서들이 포함될 것임.
 - 천만군민이 최고존엄을 어떻게 받들고 지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(北) 혁명무력의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 개시될 것임.



-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크고 작은 모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겨레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임.

- 【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비망록(4.16)】 南 보수패당이 개성공단 정상화 대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‘국면전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단 폐쇄위기 책임을 회피하고 反北전쟁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’이라고 비난(중통/남조선당국은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)
- 【중통 논평】 南 보수단체의 反北시위(4.15/초상화 훼손)를 ‘최고 존엄을 모독한 특대형 도발행위’라고 비난하며 ‘대화제의 일축 및 예고 없는 보복 행동’ 再次 위협(중통/태양을 가리우려는 범죄로 천벌을 받아도 자신만을 닦하라)

* 리기석(「총련」 상임위 고문)도 4.16 南 보수단체의 反北시위 비난 중통 기자회견(중통)

■ 4.17(수)

- 南 보수단체의 ‘反北 집회(4.15, 최고존엄 모독)’에 대해 “괴뢰패당은 핵전쟁의 포화를 불러왔다”며 “역적 무리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 것” 이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농지처참해도 시원치 않을 천하의 악행)
 - * “우리(北)의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보려는 흉계”라며 ‘예측불허 보복행동’ 위협 및 北 畵民의 ‘정의의 성전에 일떠설 것’ 선동(중통·노동신문 사설·중방/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원수들에게 복수의 철추를 내리자)
 - * “괴뢰보수 깡패들의 행위는 우리(北)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유도해내려는 음흉한 술책”이라고 주장 및 위협 공세(평방/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쓰레기 무리)
 - * 北 리영철·조남혁(군관·사관)·로수익·방철범(平南 순천·咸南 함흥시 주민) 등, “서울과 깡패 무리들의 본거지를 없애버릴 것” 등 ‘보복의지’ 표출(중통)

■ 4.18(목)

- 【北 국방위 정책국 성명(4.18)】 韓美당국이 ‘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는 용단부터 내리라’며 억지 대화조건 주장(중통·중방·평방)
 - △모든 도발행위 중지하고 전면사죄(유엔 제재결의 철회, 천안함폭침과 3.20해킹사건의 북관련설 등 중지) △공화국을 위협·공갈하는 핵전쟁연습 중지 정식으로 담보 △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핵전쟁 수단들 전면 철수 및 재투입 단념할 결단
- 【조평통 대변인 담화(4.18)】 “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매달리며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남북대화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”고 강조(중통·중방·평방)
- ‘초도화전락과 작계5015에 반영계획’ 관련 ‘북침선제타격작전체제를 완비하고 그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극히 호전적인 망동’이라고 재차 비난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자멸을 초래할 초도화전락)
 - * ‘벼랑끝 전술, 고도의 심리전’ 등 발언 관련 ‘초강경대응이 결코 심리전, 선전전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조치라는 것을 시간이 증명해 줄 것’이라고 지속 위협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조국통일대전 의지를 오판하지 말라)
- 北 ‘해병대가 경북 포항일대에서 연합상륙훈련에 광분하고 있다’고 연합뉴스 인용 비난(중통·중방)
 - * 北, 4.16 주한미군 헬기가 강원도 철원군에 추락한 사실 간략 보도(평방)



■ 4.19(금)

- 【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31호(419)】 南 보수단체 反北시위(415/초상화 훼손) 및 우리 당국 관계자의 ‘北 최고사령부 최후통첩’ 관련 언급(이해하기 어려운 처사 등)에 대해 ‘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자들은 모조리 찾아내 불벼락을 안길 것’이라고 위협(중통)
- 北 ‘공군 19전투비행단 훈련(415~18)을 북침공격연습’이라고 연합뉴스 인용 비난(중통·평방)

내부동향

■ 4.13(토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양강도 혜산시에 사는 ‘리을림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(중통)
-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사회정치학 박사 칭호(국제사회과학자연구소 전달) 수여식, 413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(중방·중통)
 - 김영남, 리영식·리용철(黨 중앙위 부부장), 리혜정(사회과학원장), 김진범(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) 등 참석
 - * 김영남, 4.13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사회과학자연구소 이사들(비슈와나스·하리쉬 굽타 등)과 담화(중통·중방)
- 【김일성 생일(415) 관련 동정】
 - * 김정은 黨 제1비서, 「총련」에 1억 9,830만원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전달(중통·중방)
 - 김일성父자와 김정은, 현재까지 159차에 걸쳐 장학금 471억 2,335만 390원 전달
 - * 재일본조선인대표단(리기석 「총련」 고문), 4.13 만경대 방문/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·국제민주여성연맹 위원장·만경대상마라톤경기대회 참가자 등, 4.13 만수대언덕 김일성父자 동상 참배(중통·중방·평방)
 - * 駐北 외교단·日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·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·스페인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, 4.13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(중통·중방)
 - * 외국선박 선원들의 경축모임, 4.13 원산항에서 진행(중통·평방)
 - * 「반제민전」 평양지부 대표, 4.13 김일성화축전장 참관(중통·평방)
 - *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제2일 공연, 4.13 평양시내 극장·음악당·회관들에서 진행/참가자들 만경대 방문(중통·평방)
 - *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(4.9), 모범적인 단위들(개성시 판문점협동농장 제2작업반·평양호텔 상업과 등)에게 3중3대혁명붉은기 등 수여(4.14,중방)
- 김정은 黨 제1비서·국방위원장 추대 1돌 경축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, 413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(중통)

..... 【주요인물 동정】

 - 외무성 대표단(김형준 부상), 413 아프리카 방문 후 귀국(중통·평방)
 - 창덕학교 친선대표단(강준호 부상), 413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(중통·평방)
 -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(오가미 켄이찌), 413 평양 도착(중통·평방)



- 인도네시아 정부문화 대표단 일조학술교육교류협회 대표단, 4.13 평양 출발(중통·중방·평방)
- 在캐나다·뉴질랜드 동포협의회 대표단·中 조선족기업가 대표단(표성룡 회장)·단동조선족기업가협회 대표단·재일동포조국방문단 등, 4.13 평양 도착(중통·평방)

■ 4.14(일)

- 김일성 생일 101돌 경축 중앙보고대회, 4.14 김영남(보고)·박봉주·최룡해·김기남(사회) 등 참가下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(중방·중통)
 - ‘우리는 일편단심 김정은을 굳게 믿고 정치사상적,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함.’
 - 쏘민은 “당이 제시한 병진노선을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쥐고 관철해 나가야 함.”
 - ‘김정은이 비준한 화력타격계획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침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을 단호한 군사적 행동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것임.’(김영남 보고)
 - * 주석단 : 김영남·박봉주·최룡해·장성택·현영철·김격식·김기남·최태복·박도춘·김영춘·양형섭·리용무·강석주·오극렬·현철해·김원홍·김양건·김영일·김평해·문경덕·주규창·김창섭·로두철·최부일·리병삼·조운준·김영대·류미영(4.15, 중방)
 - * 각 道·市(구역)·郡·연합기업소들에서도 보고대회·보고회 진행(중통)
- 【김일성 생일 경축행사 등 동향】
 - * 인민보안부에 김일성 父子 동상 건립·제막식, 4.14 현지 진행(중방·중통)
 - 김영남, 박봉주, 김기남, 김원홍, 문경덕, 김창섭, 최부일, 리병삼, 조운준 등 참여
 - * 평양 시내 단위들(역포구역·김보현대학·「직맹」·국토환경보호성·중앙양묘장 등)에 “백두산절세 위인들의 태양상·영상을 형상한” 모자이크벽화 건립(중통)
 - * 제26차 만경대상마라톤경기대회(北·우크라이나·이탈리아·에티오피아 등 10여개국·지역 600여명 참가), 4.14 광범기(黨 비서)·리종무(체육상) 등 참가下 김일성경기장에서 개막식(출발) 및 경기진행(중통·평방)
 - 제26차 만경대상마라톤경기대회 참가자들, 4.14 김정은에게 ‘편지’ 전달
 - *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, 4.14 제3일 공연 “성황리”에 진행(중통)
 - * 김일성 한생, “144만 5천여리 현지도” 칭송(중방)
 - * 제15차 김일성화축전 참가 외국손님·해외동포들·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, 4.14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중통·중방·평방)
 - * 해외동포 대표단(재중조선인총연합회·재일조선민주여성동맹 대표단·재러조선공민중앙협회 대표단 등), 4.14 만경대 방문(중통·평방)
 - * 일-조 우호 시고꾸연락회 대표, 4.14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 동상에 꽃바구니 전달(중통·중방)
 - * 멕시코 노동당 전국지도자, 3.22 김정은에게 축전(중통)
 - * 「반제민전」, 4.15 김정은에게 편지 전달(4.15, 중통)
- 김정은의 黨 제1비서·국방총 제1위원장 추대(4.11·13) 관련 지난 1년간 “핵보유국 지위, 병진노선” 등 ‘정치군사강국 업적’ 등 찬양(중방·노동신문/자주권 수호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시는 위대한 영장·정론, 승리를 안아오는 4월의 봄)



-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회 집행위원회 제14차 회의, 4.14 국제김일성·김정일상이사회 서기장 및 리길성(조선사회과학지협회 부위원장)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(중통·평방)
 - * 北 정부, 4.14 평양 고려호텔에서 김기남 등 참가下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·대표를 위한 연회 개최(중통·평방)
 - *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, 4.13 ‘김정은에게 선물’ 전달(중통·평방)

■ 4.15(월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4.15 0시 ‘태양절(김일성 생일)’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중통·중방·평방)
 - 최룡해·장성택·현영철·김격식·박도춘·김영춘·현철해·김원홍·최부일·주규창·김경옥·리영길·김영철·손철주·렴철성·조경철·윤동현·강표영·박정천·리병철·김명식·김락겸·윤정린 등 참가
- ‘김일성은 백두산대국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개척자 애국자’라고 칭송하며 ‘혁명사상과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부강조국건설의 만능의 보검’이라고 강조(중통·노동신문/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백두산 대국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)
- 【김일성생일(4.15.태양절) 101회 관련 동정】
 - *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등, 4.15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중통)
 - * 김영남, 박봉주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및 우당위원장 등, 4.15 만경대 방문(중통·중방)
 - * 北, 4.15 김영남·박봉주 등 참가下 옥류관에서 경축 연회 진행(중통·중방)
 - *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 소년단아영소들의 아영시작모임, 4.15 진행(중통·중방)
 - *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, 4.15 진행(중통·중방)
 - * 청년학생들의 무도회, 4.15 4.25문화회관·당창건기념탑 등 각지에서 진행(중통·중방)
 - *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연합공연, 4.15 평양대극장·동평양대극장·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(중통)
 - *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, 4.15 제15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(중통)
 - * 강원도 천대군·통천군·세포군, 태양상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건립(중통)
 - * 北, 각지에서 예술공연·체육경기 등 뜻깊게 경축(중통)
 - *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·청소년학생들, 4.15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등 헌화(중통)
 - * 류홍재 駐北 中대사와 대사관성원들·제15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, 4.15 만수대언덕 김일성父子동상에 꽃바구니 헌화(중통·중방)
 - * 駐北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등, 4.15 금수산태양궁전 참배(중통)
 - * 국제육상연맹-제26차 만경대상 마라톤경기대회 참가자들, 4.15 만경대교향집 방문(중통·중방)

■ 4.16(화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4.15 평양시민들과 함께 ‘태양절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(중통·중방)
 - 최룡해, 장성택, 김경희, 최태복, 양형섭, 강석주, 곽범기 등 동행 관람
- 김정은 黨 제1비서, 4.15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(중통·중방)



- 최룡해, 장성택, 현영철, 김격식, 김경희, 김경옥, 황병서, 오금철(軍총참모부 부총참모장/경기 준비 보고) 등 함께 관람
- * 김정은 黨 제1비서, 전국 육아원·애육원·초·중등학교·양로원·양생원의 원아들과 노인들에게 운동복과 학용품·식료품들 전달(4.15,평방)

● **【김일성 생일(4.15) 관련 동정】**

- * 北, 4.16 만수대의사당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(오가미 겐이찌)에게 철학박사 학위 수여 (중통)
- * 제15차 김일성화축전 참가 외국손님들, 4.16 만경대 방문(중통)
- *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조별 단독 공연, 4.16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진행(중통)

● 최룡해(총정치국장),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및 인민군열사묘건설정형 현지 요해(중통)

..... **【주요인물 동정】**

- 김영남, 4.15 베네수엘라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(중통)
- 원유공업상(배학) 일행, 4.16 제18차 원유화학국제전시회(이란) 참가차 평양 출발(중통)
- 2013년 세계청소년역도 및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, 4.16 귀국(중통)
- 제26차 만경대상마라톤 경기대회 참가자들, 4.16 평양 출발(중통)

■ **4.17(수)**

- 北 내각, 4.17 옥류관에서 김용진(부총리)·문경덕 등 참가下 ‘2013년 세계 청소년역도선수권대회’ 우승자들을 위한 연회 개최(중통·중방)
- ‘혁명사적비(회천발전소와 더불어 길이 전할 불멸의 업적이여)’ 회천발전소에 건립 준공식, 4.17 류영섭(자강도黨 책임비서) 등 참가下 진행(중통)
-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(청년중앙예술선전대 등), 4.17 경제선동활동(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 등) 전개(중통)
 - *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대성산혁명열사능 참관 및 평양민속공원·능라인민유원지·능라곱등어관 방문 소식도 보도(중통)
-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·대표들(‘비슈와나스’ 등)과 친선연환모임, 4.17 리길성(北 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) 등 참가下 진행(중통·중방)
 - *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·대표들의 만경대 방문 및 제15차 김일성화축전장·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·국가선물관 등 참관도 보도(중통·중방)
 - * 스페인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(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) 일행, 4.17 「반제민전」 평양지부 방문 및 조일민 대표와 담화(중통·중방)
- 고일영(국가과학원 413연구소 부소장), “경제적 실리가 큰 생물질 압착연료연구 성과(벼겨, 가랑잎 등 林·農業부산물을 공업적 방법으로 가공) 선전(중통)
- 몽골 김정일화협회 위원장, 4.15 김정은에게 선물 전달(중통·중방)

..... **【주요인물 동정】**

- 김영남, 4.12 짐바브웨 창건 33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중통·중방)



-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과 중국 단둥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대표단 등 제15차 김일성화축전 참가 대표단, 417 귀국(중통·평방)

■ 4.18(목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“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한” 일꾼(박혜옥, 평양 능라유치원 교양원) 등에게 ‘감사 전달(중방)
- 김정일 저작(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)발표 15돌 즈음 ‘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받들고 전민항쟁에 총궐기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 숙원을 하루빨리 성취할 것을 독려(중통·노동신문·중방/민족대단결은 반전평화옹호투쟁의 위력한 무기)
-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식, 418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(중통·중방·평방)
 - 김기남, 양형섭 등 참가下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의 폐막공연 진행
- ‘미국 선박(세난도어 등)격퇴 145년 사회과학부문 토론회, 418 사회과학원에서 진행(중통)
- 駐北 팔레스티나 대사, 418 김일성 생일 즈음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(중통·중방)
 - 김영일(黨 비서), 강하국(보건상), 태형철(교육위 고등교육상) 등 초대
-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, 418 軍 무장장비관 참관(중통·중방)
- 재일본조선인대표단(단장 :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 고문), 국가선물관 軍 무장장비관 인민외방상장 등 참관(중통·중방)

..... 【주요인물 동정】

- 김영남, 413 몬테네그라 대통령(필리프 부야노비치) 再選된 것 관련 축전(중통·중방)
- 北 인민군대표단(단장 :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), 418 아프리카 나라들 순방하기 위해 평양 출발(중통)
- 세계여자아이스하키선수권에 참가한 北 여자선수들, 418 귀국(중통)
- 재일동포조국방문단(단장 : 김용준), 418 평양 도착(중통·중방)
- 재중조선인총연합회대표단·中연변과학기술대 부총장과 일행, 418 평양출발(중통)
- 주체사상 국제연구조직 대표단들, 418 평양 출발(중통·중방)
 - 러시아 원동지역 김일성-김정일주의연구협회대표단, 러시아 김정일동지로작연구보급촉진협회 대표단, 몽골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, 프랑스주체사상연구대표단,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, 러시아 김정숙명칭여성동맹 위원장.

■ 4.19(금)

- 당중앙위·당중앙군사위, 418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공동명의로 감사전달 모임 진행(중방)
 - 김기남, 조연준, 전승훈(내각부총리), 강양모(남포시당책), 리길춘(시 인민위원장) 등 참가
- ‘강선에서 타오른 증산투쟁으로 강성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, 미국과 反北세력들의 침략책동을 응징하고 선군조선의 비약과 번영의 기상을 높이 떨쳐 나가자고 강조(중통·노동신문/강선이 지펴올린 증산투쟁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하자)



- 제15차 김일성화축전 폐막식, 4.19 김기남·양형섭 등 참가下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관에서 진행(중통·중방)
 - 北 김성덕 소속부대·인민무력부 등 특등상, 「총련」중앙상임위 駐北 인도네시아대사관에 특별상 수여
- ‘김정일선집’, 증보판 제19권 출판(중통)
- 김영남, 4.19 만수대의사당에서 재일본조선인대표단(단장:리기석)과 담화(중통·중방)
- 황해남도 경공업 원료용 나무(수유나무·포플러나무)심기 주력, 해주市 일대에 ‘75만 4천여그루’ 식수 성과 선전(중방)
- 중국 대외무역유한공사 이사장·페루 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, 4.13.1 김정은에게 선물 전달(중통)
 - * 인도네시아 투쟁민주당 중앙지도이사회 총위원장, 4.9 김일성 생일 101돌 즈음 김정은에게 축전(중통)
 - * 「총련」, 4.18 교육원조비와 장학금(1억 9,830만¥) 전달과 관련하여 김정은에게 ‘감사 전문’ 전달(4.20, 중방)
- 駐北 이란대사관 무관, 4.19 대동강외교단화관에서 自國 군대절 축하연회 개최(중통·중방)

..... 【주요인물 동정】
-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단·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이사장 일행 인도 주체사상연구소조직 대표단, 4.19 평양 출발(중통·중방)

대외동향

■ 4.13(토)

- 중통 논평(4.13), 미국의 핵항공모함(니미츠·스테니스호) 한반도 수역 급파를 ‘발악적 핵전쟁도발책동’으로 비난하며 ‘現 긴장상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’고 전기(중통/조선반도 긴장상태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)
- 北 축구팀, 4.13 ‘2014년 아시아 14살 미만 축구선수권대회(4.11~17, 홍콩)’에서對 일본팀 3:1 승리(중통)

■ 4.14(일)

- 미국의 現 한반도 정세와 관련 ‘北, 평화파괴자 등’ 국제여론 조성에 대해 “미국은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지경으로 몰아가는 기본장본인, 책임 져야 할 범죄자”라고 주장(중통·노동신문·중방/최악의 사태 책임은 미국에 있다)
- 北 ‘친선훈장 제1급’, 4.5 하노이 베트남-조선친선유치원에 수여(중방·중통)

■ 4.15(월)

- 北 - 쿠바, 4.11 ‘2013~2016 문화교류계획서’ 아바니에서 조인(평방)



■ 4.16(화)

- 【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(4.16)】 ‘미국이 對北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대화는 우리(北)가 핵억제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에 가서야 가능하다며 대화 움직임 일축(평방·중통)
 - 미국이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침략적인 무장 장비들을 철수하지 않는 한 우리(北)는 군사적 대응 도수를 계속 높여 나갈 것임.
- 김정은 黨 제비서, 4.16 시리아 독립 67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중통)
 - * 박봉주 총리도 4.16 시리아 내각 수상에게 축전(중통)
- 北 축구팀, 4.16 ‘2014년 아시아 14살 미만 축구선수권대회(4.11~17, 홍콩)’에서 몽골팀에 80 승리(중통)

■ 4.17(수)

- 미국의 對北대화 언급(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) 등 ‘한반도 정세완화 조치(ICBM 발사시험연기)’를 “또 하나의 선분류 기만극”이라며 ‘現한반도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도는 反北정책 철회라고 지속 주장(중통/조선반도 사태의 근원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)
 - * 미국의 한반도 주변 수역 무력증강(핵잠수함·해병대 급파) 비난(북침핵전쟁도발)과 現한반도사태는 ‘미국의 反北정책이 가져온 것’이라고 지속 주장 및 ‘反美대결전 완비’ 호언(중통·노동신문/핵전쟁도발을 노린 무모한 광증)
- 미국의 ‘北 핵실험 등’ 지적(국제적 의무위반·6자회담 파기)을 “새로운 병진노선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또다시 범죄시하려는 것”이라며 ‘미국의 국제적 의무 충실’ 주장(중통·노동신문/미국은 제 할바나 바로 해야 한다)
- ‘北-이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(4.15) 40년 및 시리아 독립절(46.4.17) 관련 ‘兩國의 反帝투쟁’ 지지 및 연대성 표명(중방·노동신문/반제지주를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·고대도시에 비긴 오랜 역사와 문화)
- 北 선수, 4.16 ‘세계 남자 아이스하키 3부류 선수권대회’ 2일 경기 對북셀브르크팀 5:2 승리(중방)
 - * 北, ‘2014년 아시아 U-14 축구선수권대회’ 참가 위한 예선 8조 경기(4.17 중국 홍콩) 對중국 마카오팀 15:0 승리 및 참가자격 획득(중통·중방)
- 「총련」 조직들(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 등), ‘태양절’ 즈음 김정은에게 ‘전문·편지’ 전달(중통·중방)

■ 4.18(목)

- ‘홍규(駐몽골 北 대사), 4.16 同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(중방)
 - 몽골 대통령, 몽골-조선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입장 표명
- 【중통 논평】 미국의 美-北대화 발언들 관련 ‘대화는 철저히 자주권준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,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대화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(중통/대결과 대화, 전쟁과 평화는 양립될 수 없다)

■ 4.19(금)

- 【중통 논평】 미국의 군사행동 자제와 대화 발언 관련 ‘한반도 정세를 전시 상황에 몰아넣은 책임을 모면하고, 우리(北)에게 전가하기 위한 기만술책이며 속임수라고 비난(중통/책임을 모면하려는 오그랑수)



-
- * '現 한반도 긴장상태 근원은 미국에 있다'며 '미국이 우리(北)에게 계속 못되게 노는 이상 핵무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가져야 한다'고 주장(중통·민주조선/조선반도 긴장상태의 근원은 미국에 있다)
 - * '미국은 언제나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도발 할 기회만 노려왔다'며 '南과 日 등 한반도 주변 지역들에서 끊임없이 침략전쟁 연습들을 벌려 왔다'고 주장(중통/뿌리깊은 미국의 조선 침략 역사)
 - 南 세계 취재진 운집 관련 '미국은 기자들의 심리(특종보도)를 악용하여 조선전쟁을 위한 날조선전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 주된 목적'이며 '대대적인 무력침공의 전주곡'이라고 비난(중통·노동신문/미국의 여론기만전은 전쟁전야에 쓰는 상투적 수법)
 - * 미국의 對北대화 언급은 "철저히 세계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의 극치"라며 '세계 각국의 언론인들이 똑똑히 인식하게 될 것'이라고 주장(중통/미국의 대화타령은 세계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의 극치)
 - 北 선수, 4.18 '세계 남자 아이스하키 3부류 선수권대회' 3일 경기에 그리스에 7:1 승리(중방)
 - * 北 홍국현과 김설미·김숙영 선수, 4.19 '2013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'(4.19~21, 태국) 남자 73Kg급 금메달 및 여자48kg·63kg급 은메달 획득(4.20, 중방)
 - 윤원철 선수도 '2013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' 남자 55kg급 3위 입상



금주(4.13~4.19)의 略史

- 04.13 : 인민문화궁전 준공('74년)
- 04.13 :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회5차회의 개최('12, 만수대의사당)
- 04.13 : 김일성, 김정일 동상 제막식('12, 만수대언덕)
- 04.13 : '광명성 3호'발사('12)
- 04.13 : 대동강 봉화갑문 준공('83년)
- 04.13 : 김일성에게 대원수 칭호 수여('92년)
- 04.14 : 이인모에게 김일성훈장 수여('93년)
- 04.15 : 김일성 생일(1912.4.15. 출생)
※ 공휴일 지정('74.4.15.), 태양절 지정('97.7.8.)
- 04.15 : 개성 TV 방송 개시('71년)
- 04.15 : 북한-포르투갈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('74년)
- 04.17 : 금속노동자절 제정('70년)
- 04.18 : 최고인민회의, 사회주의 노동법 채택('78년)
- 04.18 : 김정일, 민족대단결 5대 방침 발표('98년)
- 04.19 : 남북 정당·단체연석회의(4.19. 30.) 개최('48년)
- 04.19 : 남조선인민봉기 기념일('60년, 4·19 의거)
- 04.19 : 북적, 요소비료 20만톤 지원 요청('01년)